생활양식에 따른 실내디자인 선호유형

The Type of Preference of Interior Design according to the Life Style

박혜숙*/ Park, Hae-Sook
윤정숙**/ Yoon, Jung-Sook

Abstract

As living condition has improved, agreeable living environmental plans that reflect residential traits are needed from the first stage of house remodeling or interior construction. At the request of above, we need systematically study about the householder’s preference according to the life sty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ase of preferred interior by understanding preferred interior image and interior design elements. Document and questionnaire research are used as the method of study. The subjects of research wear 702 persons from 20th to 40th. Contents are constituted with general traits, life style and preferred interior image and the analysis of the materials is quantitifical analysis using statistics. In the base of the theory of interior image and interior design elements appeared in the documents, measuring apparatus is made up and suggested preferred examples of interior design depend on life style by combining preferences.

키워드: 생활 양식, 실내 디자인, 실내 이미지, 실내 구성요소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사회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특히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거생활 및 주요요

축민에서의 변화가 주목된다.1) 또한 거주자들의 소비에 대한 경제 수준이 상승하고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주거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에 따른 거주자의 주요요소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2)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거주자의 주요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조절이 제공되어야 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택의

공급수준은 매우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다양한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거주자들은 주택의 개조뿐만이 아니

라 계획现金流부터 거주자의 특성에 맞는 주거공간계획 및 주택

의 실내 구성요소의 도입에 의한 향적한 실내공간을 요구하여

각 건설업체에서도 이를 위한 계획 및 건설이 더욱 활발해 집


1) 정혜림, 동 Ih대학 실내건축과 교수, 이학박사
2) 정혜림,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문학박사

이제까지 주거공간의 연구분야에 있어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조 및 공간분석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으나 실내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그렇 많지 않은 실정이다. 거주자 특성
에 있어서도 성별이나 연령, 직업, 학력 등을 기법적으로 파악
하여 종합적인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기가 어렵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주
택의 실내 공간구성에 있어 사용자의 감성이 따른 요구가 적극
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연구는
생활양식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한편 실내 디자인 유형의 선호에 관한 대부분의 형평연구들
은 연구대상이 주로 주부이고,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도-선진자
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제한점을 지닌다. 즉 주중부 대응으로
한 실내 디자인 유형의 선호의 일관된 결과는 곡물상에 보
편화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연구34에 의하면 사전자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설계 공급체

2) 경성교육, 건물의 생활주기와 주거생활 주기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조

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1
3) 홍지혁, 실내 이미지 창정을 위한 실용적 검증 및 사용 연구, 연세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4) 방창준, 실내 이미지 유형별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용통한 거주자의 선호연구는: 1) 상관관계 평가도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많은 제한점이 있으며, 또한 가정 영향이 큰 실험 구성요소에 대한 실험 미래지리를 인지하게 되어 실험 구성요소들의 선호평가가 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생활양식과 실험 다양성에 대한 감성과 미래지리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실험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양한 거주자들의 생활양식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파악하며, 사회인구학의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실험 미래지리의 특성을 살펴보고 실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거주자의 심화한 감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주택 실험 다양성의 코디네이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주제
   <연구문제1> 거주자들의 생활양식의 특성과 유형은 어떠한가?
   1-1. 거주자들의 생활양식의 특성은 어떠한가?
   1-2. 거주자들의 생활양식의 유형은 어떠한가?
   1-3.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거주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거주자들의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실험 미래지리와 실험 구성요소는 어떠한가?
   2-1. 생활양식의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실험 미래지리는 어떠한가?
   2-2. 생활양식의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실험 구성요소는 어떠한가?

2) 포집방법 및 조사진행
   본 연구의 조사는 기초조사와 2차에 걸친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조사는 실험내용 및 실험 미래지리의 형용사 이취주제에 관한 탐색성 설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예비조사는 실험내용과 실험 미래지리에 관한 문항을 제조하여 설문조사 구의 신뢰성을 인정하였다. 본조사는 2000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대, 30대, 40대의 남녀간으로 증가폭이 있었으며 설문지와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방법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2600부를 배포하여 507부를 회수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154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총 751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702부(93.5%)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양식, 실험 미래지리, 실험 구성요소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①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은 생활양식에 따른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하여 손님 접대 및 가족단위생활, 정보통신생활, 소铑생활, 주유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으로는 가족단위에 관한 사항과 실험미래지리 등이 포함되었고,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으로는 컴퓨터사용실태, 컴퓨터를 이용한 생활실태 등이 포함되었다. 소铑생활에 관한 내용으로는 소铑에 관한 데드 및 소비의식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유장은 실험미래지리에 대한 미세 관심과 실용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제 실험 미래지리와 관련된 연구이므로 그 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생활양식에 비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② 실험 미래지리에 관한 사항
   본 연구에서는 실내 미래지리 추출을 위한 조사도구를 구성하고 상호 연구 결과에 예비조사에서 추출된 협력사, 이취주제 중 152개 수록하여 분석한 결과 공간성, 직격성, 장직성의 3가지 형성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형성층에 대한 31개의 표현어와 각 어휘에 대한 반대 어휘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미래지리는 표적이어하여 평등이론에 따라 정리해 보면 ①-1~2-3, 같다.
양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일반문에 관한 사항은 Rosemary & W.O. Kilmer(1992)의 문항을 참고하여 Flush 타입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직선형이고 단순화한 형태로 구체적인 최적화된 형태의 5가지로 재구성하였다. 조영
류하였다. 이중의 실험 구성요소에는 실험응석 전공교육 1인 및 실내디자인 전공박사학과 박사과정 4인의 협의를 거쳐 내용합당도를 인정하였다.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표 1-1>과 같다.

<table>
<thead>
<tr>
<th>부품</th>
<th>구분 구성</th>
</tr>
</thead>
<tbody>
<tr>
<td>거주자 정보사항</td>
<td>연령, 성별, 결혼여부, 직업, 교육정보, 청구금</td>
</tr>
<tr>
<td>생활 양식</td>
<td>노점활동 및 가족활동 코레일</td>
</tr>
<tr>
<td>선호하는 실험기구</td>
<td>바막, 전자, 후기</td>
</tr>
<tr>
<td>선호하는 실내 구성요소</td>
<td></td>
</tr>
<tr>
<td>비상</td>
<td>전자, 후기, 후기, 후기</td>
</tr>
<tr>
<td>생활</td>
<td>전자, 전자, 후기, 후기</td>
</tr>
<tr>
<td>설계정보</td>
<td>독서, 학습, 학습, 학습</td>
</tr>
<tr>
<td>세대</td>
<td>유아, 자녀, 후기, 후기</td>
</tr>
</tbody>
</table>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과학적 특성은 범도와 백분율의 균등도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은 비도, 백분율, 평균을 이용하여 구성요소들의 생활양식에 관한 패턴을 살펴보고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선호 실험 아이디어는 요인분석과 ANOVA 분석을 하여 실내 아이디어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넷째, 생활양식에 따른 선호 실험 아이디어는 ANOVA,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다섯째, 생활양식에 따른 선호 실내 구성요소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실험 연구

모든 실험 구성 요소의 색채, 재료, 문양, 형태에 따라 실험 아이디어는 다양하게 표현된다. 실험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실험 아이디어의 유형을 크게 거주자 특성별, 형태별, 재료별로 하위개념을 각각 달리 설정하여 유형화한 연구와 색채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유형화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table>
<thead>
<tr>
<th>연구자</th>
<th>연도</th>
<th>실험 아이디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박영호</td>
<td>1996</td>
<td>Deconstructive-Urban Deconstructive-Urban Deconstructive Ure</td>
<td></td>
</tr>
<tr>
<td>연구자</td>
<td>조사내용</td>
<td>설문지 유형</td>
<td>설문지 유형 복잡성</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이승호</td>
<td>고양시 도시, 농촌지역</td>
<td>감정주제</td>
<td>감정주제</td>
</tr>
<tr>
<td>이연복</td>
<td>대구시 아파트 거주</td>
<td>AIO 시론법</td>
<td>AIO 시론법</td>
</tr>
<tr>
<td>이영주, 이영호</td>
<td>부산시 아파트,</td>
<td>AIO 시론법</td>
<td>AIO 시론법</td>
</tr>
<tr>
<td>범범선</td>
<td>경북, 부산의 아파트 거주</td>
<td>AIO 시론법</td>
<td>AIO 시론법</td>
</tr>
<tr>
<td>김형익</td>
<td>경주시 아파트,</td>
<td>AIO 시론법</td>
<td>AIO 시론법</td>
</tr>
<tr>
<td>윤희주, 조재혁</td>
<td>부산시 아파트 거주</td>
<td>AIO 시론법</td>
<td>AIO 시론법</td>
</tr>
<tr>
<td>정재호, 이희희</td>
<td>서울시 세종,</td>
<td>AIO 시론법</td>
<td>AIO 시론법</td>
</tr>
<tr>
<td>문응자, 이정원</td>
<td>서울시, 아파트 거주</td>
<td>AIO 시론법</td>
<td>AIO 시론법</td>
</tr>
<tr>
<td>박민준</td>
<td>서울시 아파트 거주</td>
<td>AIO 시론법</td>
<td>AIO 시론법</td>
</tr>
<tr>
<td>고봉철, 윤주라</td>
<td>부산시 전주시,</td>
<td>AIO 시론법</td>
<td>AIO 시론법</td>
</tr>
<tr>
<td>신창민</td>
<td>서울시 아파트,</td>
<td>AIO 시론법</td>
<td>AIO 시론법</td>
</tr>
<tr>
<td>최희하</td>
<td>서울시, 주택세,</td>
<td>AIO 시론법</td>
<td>AIO 시론법</td>
</tr>
<tr>
<td>신인숙</td>
<td>서울시, 아파트,</td>
<td>AIO 시론법</td>
<td>AIO 시론법</td>
</tr>
</tbody>
</table>

이들 종합해 보면 생활양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크게 손님질량 및 가족단련생활, 소생생활, 주거생활 내용 등이 많

이 포함되어 있을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실내 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생활양식별 실내양식 선호성향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양호준(1994)의 연구에서는 주거생활 양식별 선호하는 실내 분위기를 시각자료로 실내사진으로 알아본 결과, 정식국립영은 현대적이면서 개성적이며 실내 분위기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났고, 정식우주형은 고전적이면서 흔한 실내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포함형은 고전적이면서 중후한 실내 분위기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분위기에 비해 높았고, 유형수구형은 현대적이면서 간단한 실내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호(1999)의 연구에서는 세구간 전통과 이미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정보통신생활이 깊이 우리 생활에 잠재하고 있어 정보통신생활과 관련하여 생활양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에 관한정보 및 가족단련

3. 조사결과 및 논의

3.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48.1%)와 남자(51.8%)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미혼(39.2%)보다는 기혼(60.8%)인 경우가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67.1%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35.9%), 40대(32.6%), 30대(3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6.9세(25.9)와 30~40세(26.5), 30~34세(26.4) 및 35~40세(25.4)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적업은 전문기술자(34.2%)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21.8%)의 순이다.

3.2. 거주자의 생활양식

(1) 거주자 생활양식의 특성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손님질량 및 가족단련생활, 정보통신생활, 소생생활, 주거생활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선행연구에서 생활양식에 조사된 문항을 모두 수집하여 37개 항목을 최종 선정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거주자의 생활양식에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생활의 영역과 4가지 범주로 구분 하여 총 24개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며, 5점 리커트(Likert) 투도

5) 양호준, 도시아파트 거주자특성에 대한 실내양식 선호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논문, 1994
6) 이승호, 고양시 도시지역의 농촌지역 거주자의 실내시각 선호연구, 인세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문학社会主义 논문, 1999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구성항목</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손목협착 및 가족관련행동</td>
<td>손목협착 자주 절개 혼란함</td>
<td>3.70</td>
</tr>
<tr>
<td></td>
<td>TV시청 과도하거나 주로한다</td>
<td>3.72</td>
</tr>
<tr>
<td></td>
<td>손목협착 주로 가설하심</td>
<td>3.90</td>
</tr>
<tr>
<td></td>
<td>가족관계의 전반점이 많이 보려고 한다</td>
<td>3.55</td>
</tr>
<tr>
<td></td>
<td>경로 상호작용을 둘러싼한다</td>
<td>2.79</td>
</tr>
<tr>
<td>정노성행동</td>
<td>병리학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많이 수집함</td>
<td>2.87</td>
</tr>
<tr>
<td></td>
<td>최근에 유리하게된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도 없이 많다</td>
<td>3.12</td>
</tr>
<tr>
<td></td>
<td>개인요인이는 정상활동의 실패수요</td>
<td>4.14</td>
</tr>
<tr>
<td></td>
<td>가족 줄거리를 이용한 바이러스 감염</td>
<td>2.98</td>
</tr>
<tr>
<td></td>
<td>컴퓨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한다</td>
<td>4.02</td>
</tr>
</tbody>
</table>

| 소핑생활     | 내의 적절한 여권/가족 행동규정을 갖추고 있는 가구나 생활하는 가구 - | 2.00 |
|               | 사례마감을 포함하면 동의 사례와 정착한 성장등을 중요시한다 | 3.91 |
|               | 비용을 얼마든지 허락한 가구나 성장등의 정착이 이루어집니다 | 3.40 |
|               | 비용이 높더라도 가족이 줄거리 할 수 있는 재정을 구 축하고 있다 | 3.68 |

| 주생활       | 실제생활관련 전달이 많다 | 3.84 |
|               | 실제활동비는 적절하지 않고 독특한 것이 좋다 | 3.72 |
|               | 현상적 전달은 적절하지 못하다 | 3.41 |
|               | 가구나 실정장비가 대상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믿는다 | 2.62 |
|               | 실정장비를 주로 바비라 | 2.55 |
|               | 실정장비에 돈을 많이 투자하 | 2.41 |
|               | 가구세대의 활동부분에의 활용성이 부족하다 | 4.12 |
|               | 실정장비가 적절하게 활용해 자녀들에 많이 이용된다 | 3.14 |
|               | 컴퓨터의 사용은 구출에 결합한다 | 3.84 |

요인

<table>
<thead>
<tr>
<th>요인형성요인</th>
<th>불필요구성요인</th>
<th>요인</th>
<th>고유값</th>
<th>본성</th>
<th>부식</th>
</tr>
</thead>
<tbody>
<tr>
<td>요인1</td>
<td>정의추구</td>
<td>870</td>
<td>2.347</td>
<td>11.2</td>
<td>11.2</td>
</tr>
<tr>
<td>요인2</td>
<td>정의추구</td>
<td>810</td>
<td>2.138</td>
<td>10.8</td>
<td>22.0</td>
</tr>
<tr>
<td>요인3</td>
<td>정의추구</td>
<td>750</td>
<td>1.947</td>
<td>9.6</td>
<td>31.3</td>
</tr>
<tr>
<td>요인4</td>
<td>정의추구</td>
<td>550</td>
<td>1.904</td>
<td>9.3</td>
<td>40.5</td>
</tr>
<tr>
<td>요인5</td>
<td>정의추구</td>
<td>510</td>
<td>1.868</td>
<td>9.1</td>
<td>42.9</td>
</tr>
<tr>
<td>요인6</td>
<td>정의추구</td>
<td>650</td>
<td>1.514</td>
<td>7.5</td>
<td>75.7</td>
</tr>
</tbody>
</table>

요인은 실제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주요한 정보를 추구하는 정보추구행동, 정보추구행동에 관심이 있지만 실정적需要用가 비언어적 행동으로 관련이 있다. 정량적 생활관련 전반점이 있다. 최근에 유리하게된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도 없이 많다.

(3) 생활양식의 유형화

생활양식을 측정한 각 변수들에 짐작하는 몇 가지 차원의 발전과 이들 차원의 피드백을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한 후, 흔들 문헌에 대한 개인별 요인 점수(Factor Score)를 산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의 결과는 파라미터(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7개로 분석되었으나 Scale test은 결과 6개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적절직 0.3 이상이 2개 항목을 범위로 20개 문항을 다시 요인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3》과 같다.

<table>
<thead>
<tr>
<th>요인형성요인</th>
<th>불필요구성요인</th>
<th>요인</th>
<th>고유값</th>
<th>본성</th>
<th>부식</th>
</tr>
</thead>
<tbody>
<tr>
<td>요인1</td>
<td>정의추구</td>
<td>870</td>
<td>2.347</td>
<td>11.2</td>
<td>11.2</td>
</tr>
<tr>
<td>요인2</td>
<td>정의추구</td>
<td>810</td>
<td>2.138</td>
<td>10.8</td>
<td>22.0</td>
</tr>
<tr>
<td>요인3</td>
<td>정의추구</td>
<td>750</td>
<td>1.947</td>
<td>9.6</td>
<td>31.3</td>
</tr>
<tr>
<td>요인4</td>
<td>정의추구</td>
<td>550</td>
<td>1.904</td>
<td>9.3</td>
<td>40.5</td>
</tr>
<tr>
<td>요인5</td>
<td>정의추구</td>
<td>510</td>
<td>1.868</td>
<td>9.1</td>
<td>42.9</td>
</tr>
<tr>
<td>요인6</td>
<td>정의추구</td>
<td>650</td>
<td>1.514</td>
<td>7.5</td>
<td>75.7</td>
</tr>
</tbody>
</table>

요인분석 결과 생활양식의 요인은 (1) 정보생산력에서 관련된 정보를 추구하는 정보추구행동, (2) 실내활동에 관심이 있는 실정적需要用가 비언어적 행동으로 관련이 있다. 정량적 생활관련 전반점이 있다. 최근에 유리하게된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도 없이 많다.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많이 수집함

اته Carmichael, 2001년 6월 68
<표 3-3> 생활양식 요인과 집단간의 ANOVA 검증

<table>
<thead>
<tr>
<th>요 인</th>
<th>생활양식 유형</th>
<th>원 급</th>
<th>F</th>
<th>Scheffe 결론</th>
</tr>
</thead>
<tbody>
<tr>
<td>요인 1</td>
<td>고유</td>
<td>유의</td>
<td>198.218</td>
<td>AB</td>
</tr>
<tr>
<td></td>
<td></td>
<td>유의</td>
<td>4.597</td>
<td></td>
</tr>
<tr>
<td></td>
<td></td>
<td>유의</td>
<td>2.001</td>
<td>BC</td>
</tr>
<tr>
<td></td>
<td></td>
<td></td>
<td>0.653</td>
<td>C</td>
</tr>
<tr>
<td></td>
<td></td>
<td>유의</td>
<td>0.961</td>
<td></td>
</tr>
<tr>
<td>요인 2</td>
<td>실업</td>
<td>유의</td>
<td>2360.1</td>
<td>A</td>
</tr>
<tr>
<td></td>
<td></td>
<td>유의</td>
<td>0.437</td>
<td></td>
</tr>
<tr>
<td></td>
<td></td>
<td>유의</td>
<td>0.630</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1.122</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1.620</td>
<td></td>
</tr>
<tr>
<td>요인 3</td>
<td>극력</td>
<td>유의</td>
<td>5.145</td>
<td>AB</td>
</tr>
<tr>
<td></td>
<td></td>
<td>유의</td>
<td>2.841</td>
<td></td>
</tr>
<tr>
<td></td>
<td></td>
<td>유의</td>
<td>0.046</td>
<td></td>
</tr>
<tr>
<td></td>
<td></td>
<td>유의</td>
<td>1.244</td>
<td></td>
</tr>
<tr>
<td></td>
<td></td>
<td>유의</td>
<td>0.047</td>
<td></td>
</tr>
<tr>
<td>요인 4</td>
<td>영구</td>
<td>유의</td>
<td>2.341</td>
<td></td>
</tr>
<tr>
<td></td>
<td></td>
<td>유의</td>
<td>1.401</td>
<td></td>
</tr>
<tr>
<td></td>
<td></td>
<td>유의</td>
<td>1.533</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0.654</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2.374</td>
<td></td>
</tr>
<tr>
<td>요인 5</td>
<td>극력</td>
<td>유의</td>
<td>6.144</td>
<td>A</td>
</tr>
<tr>
<td></td>
<td></td>
<td>유의</td>
<td>2.140</td>
<td></td>
</tr>
<tr>
<td></td>
<td></td>
<td>유의</td>
<td>2.072</td>
<td></td>
</tr>
<tr>
<td></td>
<td></td>
<td>유의</td>
<td>2.342</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2.407</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2.341</td>
<td></td>
</tr>
</tbody>
</table>

**한국소비자생활안전조례 논문 27회 2001년 6월 69**

한국소비자생활안전조례 논문 27회 2001년 6월 69

(3)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거주자 특성

거주자의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5>, <표 3-6>과 같다.

<표 3-5>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유형 1</th>
<th>유형 2</th>
<th>유형 3</th>
<th>유형 4</th>
<th>유형 5</th>
<th>비도 분포</th>
</tr>
</thead>
<tbody>
<tr>
<td>나이</td>
<td>176</td>
<td>97</td>
<td>54</td>
<td>54</td>
<td>140</td>
<td>374</td>
</tr>
<tr>
<td>성별</td>
<td>20.9</td>
<td>25.5</td>
<td>9.3</td>
<td>42.2</td>
<td>42.8</td>
<td>364</td>
</tr>
<tr>
<td>직업</td>
<td>36.9</td>
<td>30.0</td>
<td>37.5</td>
<td>35.8</td>
<td>57.2</td>
<td>100.0</td>
</tr>
<tr>
<td>계급</td>
<td>19.9</td>
<td>21.4</td>
<td>11.0</td>
<td>22.1</td>
<td>18.0</td>
<td>100.0</td>
</tr>
<tr>
<td>기혼</td>
<td>78.6</td>
<td>109.4</td>
<td>41.7</td>
<td>73.1</td>
<td>126.7</td>
<td>247</td>
</tr>
<tr>
<td>비혼</td>
<td>22.5</td>
<td>14.9</td>
<td>31.3</td>
<td>26.8</td>
<td>19.9</td>
<td>100.0</td>
</tr>
<tr>
<td>계급</td>
<td>140.0</td>
<td>160.0</td>
<td>77.5</td>
<td>155.0</td>
<td>180.2</td>
<td>362</td>
</tr>
<tr>
<td>고용</td>
<td>19.9</td>
<td>19.9</td>
<td>5.1</td>
<td>37.1</td>
<td>41.1</td>
<td>120</td>
</tr>
<tr>
<td>실업대</td>
<td>15.8</td>
<td>15.0</td>
<td>4.2</td>
<td>30.8</td>
<td>34.2</td>
<td>100.0</td>
</tr>
<tr>
<td>계급</td>
<td>13.6</td>
<td>12.0</td>
<td>6.5</td>
<td>23.9</td>
<td>22.8</td>
<td>17.1</td>
</tr>
<tr>
<td>대학</td>
<td>6.0</td>
<td>6.1</td>
<td>4.0</td>
<td>6.1</td>
<td>7.8</td>
<td>30.0</td>
</tr>
<tr>
<td>대학원</td>
<td>20.0</td>
<td>20.3</td>
<td>13.3</td>
<td>20.3</td>
<td>20.0</td>
<td>100.0</td>
</tr>
<tr>
<td>계급</td>
<td>42.9</td>
<td>40.7</td>
<td>51.5</td>
<td>39.4</td>
<td>43.3</td>
<td>42.7</td>
</tr>
<tr>
<td>재학</td>
<td>22.8</td>
<td>29.5</td>
<td>13.5</td>
<td>11.7</td>
<td>22.2</td>
<td>100.0</td>
</tr>
<tr>
<td>계급</td>
<td>27.9</td>
<td>34.0</td>
<td>25.9</td>
<td>12.9</td>
<td>21.1</td>
<td>24.4</td>
</tr>
<tr>
<td>경력</td>
<td>14.0</td>
<td>150.0</td>
<td>77.5</td>
<td>155.0</td>
<td>180.0</td>
<td>702</td>
</tr>
<tr>
<td>계급</td>
<td>15.9</td>
<td>21.4</td>
<td>11.0</td>
<td>22.1</td>
<td>25.6</td>
<td>100.0</td>
</tr>
</tbody>
</table>

유형 1(고용구조형)는 전체 거주자의 19.5%가 이에 해당한다. 기혼과 미혼의 20대 및 30대의 나이와 더불어 대출여와의 전문 기술자와 직원이 다수를 차지하며 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이에 속한다. 유형 2(단단한구조형)는 전체 거주자의 2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기혼의 남자가 많으며 3000~4000만원, 대출여와의 전문기술자와 사무직이 이에 속한다. 유형 3(평범구조형)는 전체 거주자의 11.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남자와 여자간 고용률 증가 및 30대의 기혼과 미혼녀가 2000만원~3000만원이하의 소득층이다. 대출여와가 많으며, 사무직과 학생이 이에 속한다. 유형 4(생활구조형)는 전체 거주자의 22.1%가 이에 속하며, 20대와 30대의 미혼의 여자와 남자로서 연령층이 분포로 '소득은 3000만원 이하'하고 고용, 전문 대졸, 대졸자가 이에 속하며 사무직, 학생, 판매 서비스직이 이에 속한다. 유형 5(보편구조형)는 전체 거주자의 25.6%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0대의 기혼 여성과 많으며 3000~4000만원이상의 소득을 가진 주부, 판매 서비스직이 많다.
(4) 실내 이미지 요인분석 결과

가구자들이 선호하는 실내 이미지를 측정한 각 변수들에 강재하는 몇 가지 차원의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여 비슷한 문항끼리 묶은 두, 유인 문항들에 대한 개념별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산출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자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추출 방법은 각각 최적방식인 바르맥스(Varimax) 검정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요인의 수는 아이젠 1.0을 기준으로 5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요인의 적재

---

70 한국설계(가구디자인학회논문지) 27호 2001년 6월

3.3. 가구자들의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실내 이미지와 실내 구성요소

(1)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실내 이미지 특성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실내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과 대조에 대한 결과는 (그림 3-1)과 같으며 각 유형에 따라 대부분의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다. 각 실내 이미지의 형상소 분류에 대한 Scheppe의 내용 분류함으로써 각 유형별 실내 이미지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각 생활유형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실내 이미지는 미학적/무Opacity, 재현적인/개방적인, 오랫동안/아담한, 무거운/가벼운, 정적인/동적인, 안정적인/동적인, 안정적인/동적인, 대담한/아기자기한 이였다. 유형 1(고급주거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였고 있으며 수익성/평범한, 인위적인/자연적인의 인식에서는 유형 2(단기주거형)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각 외의 유형들과 차이를 보였다.

가전/무인형의 인식에서는 유형1(고급주거형)과 유형 5(보안주거형)에 차이가 없으며 두 유형과 유형 5(보안주거형)에 차이가 아직 나타나고 있다. 시원함/안정적인 인식에서는 유형 4(생활주거형)와 유형 5(보안주거형)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독특함/명_Report의 인식에서는 유형 1(고급주거형)과 나머지 유형에서 차이가 있다. 개방함/수용형의 인식에서는 유형 1(고급주거형)과 유형 2(가족주거형, 단기주거형)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화/복잡함의 인식에서는 유형 3(단기주거형)의 유형 4(생활주거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자가 높은 안정적인 인식에서 유형 1(고급주거형)과 유형 3(단기주거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실내 분위기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유형 1(고급주거형)은 아주 고급스럽고 겉이가 높으며 매우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이며 풍랑으로 가장 몹시히 매우 절정하고 일반화된 것으로 아름답게 생활양식의 요인에서 묶어 놓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직접히 알 수 있다.

70 요인분석은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사결과 변동 30%이상의 유의하다고 보지만 변동의 기준은 40%이상이며, 50%이상의 경우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실내 이미지 특성은 <표 3-7>과 같다.

고공취주형은 우아/기교있는 이미지, 단단취주형은 우아/수수한 이미지, 편의취주형은 우아/단순한 이미지, 유형취주형은 단순/기교적 이미지, 보편취주형은 우아/편안한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의 연구결과(9,10)와 일치하고 있다. 해석되며 유형 5(보편적 구형)에서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온 케이스에 대한 선호도 유형 5(보편적 구형)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 있고 흔히 주목할 만하다.

선호하는 백문양에 있어서도 모든 유형에서 문장이 없는 단석 바닥재를 높게 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유형 1(고급추구형)과 유형 2(단편추구형), 유형 5(보편적 구형)에서는 새로운 빛의 문장을 신호하였다. 백문양과 기허위적 문양, 추상적 문양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유형 4(유형추구형)에서 추상적 문양과 기허위적 문양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거주자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양식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색채 이지리의 분석결과

| <표 3-10 참조> 생활양식 유형별 선호하는 색채 | | |
| 계 |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 유형 4 | 유형 5 | 보편적 구형 |
| | 문화 | 보편적 | 문화 | 보편적 | 문화 | 보편적 | 보편적 | 보편적 |
| | | | | | | | | |
| 낙서 | 12.6 | 12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 동시에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 창석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 심장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 화학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 전통체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46.2 |
| 계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소파의 선호 분석결과 소파 마감재는 모든 유형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거주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죽이라는 재료를 고급스러운 자연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파의 마감재는 모든 유형에서 문장이 없는 단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3-11>의 결과와 같다. 소파의 형태에 있어서는 유형 1(고급추구형)에서는 세미클래식 타입이 B가 18.6%로 가장 높았으며, 유형 2(단편추구형)는 세미모던 타입 A가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유형 3(전면적 효율형)는 세미클래식 타입 B(23.4%)와 세미모던 타입 A(19.5%)와 세미모던 타입 B(19.5%)순으로 비슷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유형 4(유형추구형)에서는 세미모던 타입 B(28.7%)가 다른 형태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유형 5(보편적 구형)에서는 세미클래식 타입A와 세미클래식 타입B가 선호도가 있었다.<표 3-12> 참조. 본 조사 결과에서 세미모던타입B와 세미클래식 타입A의 형태가 모든 유형에서 높게 선호하고 있으며 인선 소파도 매우 높은 선호도를 알 수 있었다.

8) 편명 경제학, 아파트-아파트 마감재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 한국주택학회지, 10(2), 1999
9) 조명은, 공동주택계획을 위한 전체의 생활양식적 주거설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사학위 논문, 1999
10) 박재영, 이지리 생활 선호도에 따른 실내 디자인 작품성 요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디자인 석사학위 논문, 1997
11) 조명은, ibid, 1999
조명기구의 화학적 성분과 유형에 따라 제조된 선형 분석 결과, 이는 산림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만드는 선형 분석 모형이 달라지며, 각 부분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이 사용되었다. 또한, 이는 같은 기기에서 제조된 선형 분석 모형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제조된다. 

## <표 3-13> 생물량 및 유형별 선호하는 조명기구

| 항목       |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 유형 4 | 유형 5 | 비도 | 계 항목함수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무신호기</td>
<td>25</td>
<td>46</td>
<td>45</td>
<td>12</td>
<td>17</td>
<td>47</td>
<td>94</td>
</tr>
<tr>
<td>무선호기</td>
<td>28</td>
<td>52</td>
<td>48</td>
<td>15</td>
<td>19</td>
<td>57</td>
<td>114</td>
</tr>
<tr>
<td>위치</td>
<td>30</td>
<td>55</td>
<td>50</td>
<td>16</td>
<td>20</td>
<td>61</td>
<td>122</td>
</tr>
<tr>
<td>위치</td>
<td>31</td>
<td>56</td>
<td>51</td>
<td>17</td>
<td>21</td>
<td>62</td>
<td>124</td>
</tr>
</tbody>
</table>

## <표 3-12> 생물량 및 유형별 선호하는 조명기구

| 항목       |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 유형 4 | 유형 5 | 비도 | 계 항목함수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무신호기</td>
<td>25</td>
<td>46</td>
<td>45</td>
<td>12</td>
<td>17</td>
<td>47</td>
<td>94</td>
</tr>
<tr>
<td>무선호기</td>
<td>28</td>
<td>52</td>
<td>48</td>
<td>15</td>
<td>19</td>
<td>57</td>
<td>114</td>
</tr>
<tr>
<td>위치</td>
<td>30</td>
<td>55</td>
<td>50</td>
<td>16</td>
<td>20</td>
<td>61</td>
<td>122</td>
</tr>
<tr>
<td>위치</td>
<td>31</td>
<td>56</td>
<td>51</td>
<td>17</td>
<td>21</td>
<td>62</td>
<td>124</td>
</tr>
</tbody>
</table>

## <표 3-11> 생물량 및 유형별 선호하는 조명기구

| 항목       |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 유형 4 | 유형 5 | 비도 | 계 항목함수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무신호기</td>
<td>25</td>
<td>46</td>
<td>45</td>
<td>12</td>
<td>17</td>
<td>47</td>
<td>94</td>
</tr>
<tr>
<td>무선호기</td>
<td>28</td>
<td>52</td>
<td>48</td>
<td>15</td>
<td>19</td>
<td>57</td>
<td>114</td>
</tr>
<tr>
<td>위치</td>
<td>30</td>
<td>55</td>
<td>50</td>
<td>16</td>
<td>20</td>
<td>61</td>
<td>122</td>
</tr>
<tr>
<td>위치</td>
<td>31</td>
<td>56</td>
<td>51</td>
<td>17</td>
<td>21</td>
<td>62</td>
<td>124</td>
</tr>
</tbody>
</table>

## <표 3-3> 생물량 및 유형별 선호하는 조명기구

| 항목       |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 유형 4 | 유형 5 | 비도 | 계 항목함수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무신호기</td>
<td>25</td>
<td>46</td>
<td>45</td>
<td>12</td>
<td>17</td>
<td>47</td>
<td>94</td>
</tr>
<tr>
<td>무선호기</td>
<td>28</td>
<td>52</td>
<td>48</td>
<td>15</td>
<td>19</td>
<td>57</td>
<td>114</td>
</tr>
<tr>
<td>위치</td>
<td>30</td>
<td>55</td>
<td>50</td>
<td>16</td>
<td>20</td>
<td>61</td>
<td>122</td>
</tr>
<tr>
<td>위치</td>
<td>31</td>
<td>56</td>
<td>51</td>
<td>17</td>
<td>21</td>
<td>62</td>
<td>124</td>
</tr>
</tbody>
</table>
4. 결론

본 연구의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살내 성호 유형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지의 생활양식 유형은 다음과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1) 도시 계층의 주거형태 승인하여 실내 디자인에서도 관심이 많은 고급주거형 (타입 1) 2) 가축과 가축생활을 증시하며 전자문서성을 통해 비교적 높은 단가주거형 (타입 2) 생활에 있어 난방 위치가 적하려는 주거형 (타입 3) 실용성 보다는 난방에 보호를 대한 것을 더 추구하는 유형주거형 (타입 4) 병용설치

둘째, 거주자의 생활양식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실내 이미지의 차이가 있으며, 실제 구성요소 중 벽과 소파자리, 조명 기구, 창문처리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급주거형은 우아하고 겸주와 섬유한 이미지, 단순주거형은 우아하고 수수한 이미지, 단변주거형은 섬유한 이미지, 유형주거형은 거칠고 차가운 이미지, 보편주거형은 쌍한 나무로 가리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활양식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실내 구성요소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사람들이 여러가지의 식재림 이미지, 문양을 형성하는 가축생활의 소재와 단순한 형태의 일반인(타입 A)을 선호하고 있으며, 타입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벽, 소파, 조명기구, 창문처리에서 생활양식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의 경우 유형주거형은 특히 기하학적인 문양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파의 경우 고급주거형과 단변주거형, 보편주거형에서는 세미플로식(타입 B형태), 단변주거형과 유형주거형에서는 벽 모던(타입 B형태) 선호하였다. 조명기구의 경우 고급주거형과 단변주거형은 삼각형, 사각형주거형은 패턴(타입 A형)을, 유형주거형은 천장부착 사각형을 선호하였다. 창문처리의 경우 고급주거형과 단변주거형, 단변주거형에서 벽글라스를 선호하였고 유형주거형과 보편주거형에서는 창문처리를 선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거주자의 생활실내 이미지와 실내 구성요소를 총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실내 이미지와 실내 구성요소의 선호도 파악 방법으로 기존 연구들의 시각적 중심의 유형분류법과는 차별화된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본 연구의 선호도를 보완하기 위해 거주자의 감성표현으로부터 실내 이미지와 주요한 실내 구성요소의 선호도를 얻어 파악하였다. 관련분야의 실내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조합함으로써 거주자가 실내 디자인 선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주택의 실내 디자인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거주자의 생활양식에 맞는 실내 이 미지 설계이다. 본 연구 결과 생활양식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실내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집합주택의 공급시에도 다양한 거주자의 생활양식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론과 고려함 실내 마감재의 옵션제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연구결과에서 실내 이미지에 대한 실내구성요소가 크게 차이가 난 것으로 각 실내 구성을 요소마다 좀 더 세분화된 많은 자료를 유형화하여 실내 이미지를 표현하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호하는 색채는 모든 유형에서 아이보리/베이지색으로 선호한다 고 나타났는데 이는 거주자의 감성을 성숙하게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형상을 위한 설계공간이 가시화한 연구(1), p.2
2. 정유진, 주택의 생활양식과 기록살해 추구에 따른 공동주택의 기조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1
3. 홍미혜, 실내 이미지 측정도구의 실험적 검증 및 사용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4. 박인호, 실내 이미지 유형별 포괄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5. 홍유진, 도시아파트 거주자특성에 따른 실내양식 선호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6. 이승용, 도가양시 도지역의 농촌지역 거주자의 실내디자인 선호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1999
7. 권오정, 전철입, 아파트 거실 마감재에 대한 선호도와 반응, 한국주거학회지, 1/2, 1999
8. 조병은, 공동주택계획을 위한 실내설계 생활양식과 주거선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9. 리영희, 이미지 유형 선호도에 따른 실내디자인 적용요소 측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환경디자인 석사학위 논문, 1997
10. 이승오, 공동주택의 실내디자인 이미지 유형 및 특성 분석,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5.
11. 김영우,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아이템과의 상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2
12. 강성구, 주택형간존재의 아파트 실내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사온적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6.
16. 오윤주, 인테리어디자인론, 기품장, 1990

<접수: 2001. 4. 30>